

#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

### 6000만원 성과금 확보 기업 애로·규제개선 등 호평 울 근로자 복지 편의 등 추진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2023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기관 표창과 함께 6000만원의 성과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기업애로·규제개선 등 16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추진으로 기업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내 기업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해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의와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기술사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을



이학수(왼쪽 네번째) 시장을 비롯한 부서 관계자들이 전북자치도 주관 '2023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확대 시행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이

뤄낸 성과"라며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정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1000원 택시 303개 마을 달린다

### 농촌복지택시 확대 운영...이용 거리 따라 100~1000원 요금

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촌복지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정읍시는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복지택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택시 운행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시장이 운행

의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이다. 2021년에는 3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시행 첫해에는 차량 7대를 투입해 7개 면·동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지난해에는 차량 30대 17개 읍·면·동 299개 마을로 대상 마을을 늘렸다.

올해는 차량을 1대 더 추가해 18개 읍·면·동 303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다. 복지택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정배치하고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마을회관까지 가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과 정해진 시간에 몇 차례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금은 1회 이용 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며 운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올해도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행복'을 실현하겠다"며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 들은 반영해 복지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소상공인 상가 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 시, 추경 확보 50곳→80곳 확대...29일까지 신청자 접수

남원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상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상가 간판 교체, 외관·내부시설 정비, 영업물품 구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물품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남원시에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는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량을 예초 50개소

에서 8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순위가 결정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좋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간다"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

### 지난해 목표 초과 이어 모금 순조

고창군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벌써 1억원을 넘어서 모금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목표액 6억원을 초과 달성했던 고창군은 올해도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향 농·축협과 공무원들의 지역 간 상호기부 등 우수한 모금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자인 소개하기, 맞춤형 답례품 개발 등 10만원대 기부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8000여명의 고정 기부자를 확보하고 재외향우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한 주도적 홍보를 통해 민간 참여의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기부자를 연결 시켜주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돼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고창갯벌 조류 164종 11만여 마리 서식

### 군, 서식지 모니터링 중간보고회...위협요인 등 소개



고창군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사진)에서 서식하는 새들의 분포와 이들의 먹이사슬을 조사 중이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갯벌 조류 서식지 모니터링' 조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려 수행기관인 전남대의 성하철 교수가 갯벌조사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 성하철 교수는 고창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조류 포함 총 164종 10만5364개체의 조류 서식현황이 확인됐음을 알렸다. 또 조류서식지로서의 갯벌환경과 서식 위협요인 등도 소개됐다.

보고회에서는 용역데이터에 대한 국내 갯벌분야 전문가 6명의 토론과 제언을 통해 갯벌 관리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향후 철새 주요 기착지로서 의의를 갖는 고창갯벌의 가치를 홍보하고 추후 조류 서식지 관리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갯벌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윤준병 민주 후보 '정읍고창' 총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윤준병 후보(63·사진)가 "하나된 정읍고창이 검찰특재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윤준병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윤준병 vs 유성열' 정읍·고창 2인 경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역 의원인 윤준병 후보를 최종 선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 4년간 정읍과 고창을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바탕으로 '정읍·고창의 봄'을 앞당기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



한민국의 봄'을 되찾으라는 주민과 당의 준엄한 명령을 소명으로 삼아 제22대 총선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함께 경쟁한 유성열 후보와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비운 뒤땅은 더 단

단히 굳어지듯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고창의 화합과 통합의 정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 정읍과 고창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에 빼앗긴 민주주의와 정권을 되찾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읍고창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수 목 장

#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